



지난해 5월 영국 로이터 통신을 통해 공개된 1장의 사진이 전세계를 경악시켰다.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된 여자 아기인 소피아. 천사같이 천진난만한 눈을 가진 소피아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 보균자다. 소피아는 러시아 제 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보호시설에 격리 수용돼 있다. 이 시설에는 소피아 말고도 HIV에 감염된 수십여 명의 아기들이 있다. 이 사진이 공개될 당시 22명의 어린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40여 명으로 늘어났다는 최근 소식이다. 이 시설은 한번 다녀간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한국인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인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 1층 로비에서 개인 자선 바자회를 열었다. 총장 취임 후 각국 정상과 방문객들로부터 받은 71점의 각종 선물을 내놓은 것. WHO총장이 개인 선물을 자선 행사에 내놓은 것은 처음이었다. 이 총장이 이런 행사를 가진 것은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 시설을 돕기 위해서였다. 이 총장은 두 달 전 러시아 방문길에 이 곳을 둘러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보호시설은 러시아의 심

각한 에이즈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에이즈 시한 폭탄'

지난해 12월 현재 공식적인 통계로 HIV에 감염된 러시아내 보균자는 20만 명. 그 중 1만 명이 어린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보균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렇게 따지면 인구 대비에서 중국보다 6배 높고 전체 수에서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1억4750만 러시아 인구 중 1%가 HIV 보균자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러시아인들은 에이즈의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한다. HIV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현재 HIV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나라지만 15년 전까지만 해도 에이즈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HIV도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 급격히 이행하면서 생활고와 실업,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젊은이들을 마약에 탐닉하게 만들었다. 때마침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경을 넘어 헤로인 등의 마약이 러시아로 대량 유입됐다.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된 여자 아기인 소피아. 천사같이 천진난만한 눈을 가진 소피아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 보유자다.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된 여자 아기인 소피아. 천사같이 천진난만한 눈을 가진 소피아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 보유자다.

▲ HIV에 감염된 아기, 소피아
(사진: 로이터 통신)

러시아의 마약 사용자들은 주로 주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HIV도 더 빠르게 퍼졌다. 경제난으로 의료와 질병예방 시스템이 붕괴한 것도 HIV 확산을 부채질했다.

러시아에선 현재 한 해 500여 명이 에이즈로 목숨을 잃는다. 전세계적으로 해마다 300여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러시아인 HIV 보유자들은 아직 잠복기 상태에 있다. 상당수는 자신이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몇 년 후 이 잠복기가 지나면 전국적으로 에이즈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에이즈 상황을 '지하폭탄'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15~29세 감염인이 전체의 80% 차지

세계은행은 러시아에서 지금 추세로 HIV가 확산한다면 2010년경에는 해마다 적어도 25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해 65만 명이 에이즈로 숨질 것이라는 끔찍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러시아 에이즈 상황의 또 다른 특징은 15~29세 사이의 젊은층 HIV 보유자가 많아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는 것. 서방에서는 30대 이상 보유자가 다수인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에는 임신부를 포함한 15~20세의 젊은 여성 보유자가 급증하고 있다. 유독 러시아에서 태어날 때부터 HIV에 감염된 소피

아 같은 아이들이 많은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작 러시아 정부가 얼마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바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보건부에는 에이즈 담당자가 5명뿐이라고 폭로했다. 러시아 정부가 에이즈 퇴치를 위해 따로 배정한 예산은 연간 1억2800만 루블(약46억8500만 원).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너무나 어이없는 액수다. 오히려 민간단체와 외국인들이 러시아 에이즈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려 나서고 있다. 러시아 최대의 에이즈 관련 사이트인 에이즈넷(www.aids.ru)도 민간인들이 외국 기관의 지원으로 만든 것이다.

러시아 에이즈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대표적인 유명 인사는 미국의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 그는 지난해 말 딸을 타다가 손을 다쳐 김스를 하고도 모스크바에 왔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태스크포스 창설을 위해서였다. 기어는 에이즈 예방교육을 위해 3000만 달러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UN의 에이즈프로그램 본부는 지난해 세계 에이즈 날(12월1일)을 맞아 중국과 인도와 함께 러시아를 '에이즈 한계점에 도달한 국가'로 지목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15년 전 사회주의 체제 붕괴라는 시련을 겪었던 러시아는 이제 에이즈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